

■ 주요 뉴스: 미국의 인플레이션 및 공급 차질 우려, 기업 실적 호조 등으로 완화

- 연준의 주요 인사, 노동력 부족 및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가능성을 경고
-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ECB의 내년 기준금리 인상 이유는 부재
-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ETF 거래 시작, 대규모 거래 동반하며 상승 마감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양호한 기업 실적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지속

주가 상승[+0.7%], 달러화 약세[-0.2%], 금리 상승[+4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긍정적인 기업 실적 전망 등이 배경. 기술주가 강세
유로 Stoxx600 지수는 미국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0.3%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예상보다 부진했던 주택부문 지표 등이 반영
유로화 가치는 0.2% 상승, 엔화는 0.1% 절하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수익률곡선의 스티프닝 현상으로 4개월래 최고 수준
독일은 영란은행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4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176.5원, -3.0원) 0.3% 하락, 한국 CDS 하락

		10/19일	10/18일	전일대비			10/19일	10/18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519.6	4,486.5	0.74%	국채 금리 10y	미국	1.64%	1.60%	4bp
	유럽	468.58	467.04	0.33%		독일	-0.11%	-0.15%	4bp
	중국	3,593.2	3,568.1	0.70%	CDS 5y	한국	19bp	20bp	-1bp
	일본	29,216	29,025	0.65%		중국	47bp	49bp	-2bp
	한국	3,029.0	3,006.7	0.74%	위험 지표	EMBI+	-	374	-
환율	달러지수	93.79	93.95	-0.17%		VIX	15.70	16.31	-3.74%
	유로화	1.1633	1.1610	0.20%		WTI유	82.96	82.44	0.63%
	엔화	114.38	114.32	-0.05%	원자재	구리	468.0	472.6	-0.97%
	위안화	6.3826	6.4298	0.74%		금	1,769.3	1,764.9	0.25%
	원화	1,178.7	1,187.6	0.76%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의 인플레이션 및 공급 차질 우려, 기업 실적 호조 등으로 완화

- 상당 기간 공급 차질과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성장 둔화 가능성 등이 부각되었고, 투자심리도 악화. 하지만 3/4분기 기업실적 발표가 시작되면서 공급 차질, 노동력 부족,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각이 확산
- 지금까지 3/4분기 실적을 발표한 S&P500 기업 가운데 80%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 Villere & Co의 Lamar Villere는 인플레이션 등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일부 긍정적 신호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
-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초우량 테크기업으로 구성된 NYSE FANG+ 지수는 1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 다만 Interactive Brokers의 Steve Sosnick는 S&P 500 기업 가운데 일부만이 실적을 발표했으며, 상황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고 지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연준의 주요 인사, 노동력 부족 및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가능성을 경고

- 리치몬드 연은의 바킨 총재는 노동력 부족이 코로나 19 보다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 연준의 보우먼 이사도 노동시장이 코로나 19 이전 수준 회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언
- 한편 연준의 월러 이사는 경제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기에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11월 테이퍼링 시행이 적절하다고 언급. 다만 기준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첨언

■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ECB의 내년 기준금리 인상 이유는 부재

- 빌루아 드 갈로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2%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금리인상에 나설 필요는 없다고 설명. 핀란드 중앙은행 렌 총재도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징후들이 있다고 진단
- 다만 슬로베니아 중앙은행 보스천 바슬레 총재는 역내 고물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내년 3월 예정대로 긴급자산매입프로그램을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 또한 인력부족 현상이 계속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부연

■ IMF, 금년 아시아 성장률 전망을 하향. 공급 차질 등이 주요 원인

- 금년 아시아 성장률의 전망치를 6.5%를 제시하여 이전 대비 1.1%p 하향 조정. 2022년 성장률은 5.7%로 예상. 공급 차질 이외에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따른 자본유출 및 차입비용 증가 가능성 등도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

■ 중국 상무부,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

- 왕웬타오 장관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사용 가능한 재정을 최대한 사용할 것이며, 여타의 정책도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언급.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동결.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필요

- 시장 예상대로 3.5%의 기준금리를 유지. 와루지요 총재는 이번 결정이 경제성장을 회복시키고 환율 및 금융시스템 안정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

■ 호주 중앙은행 의사록, 완화적인 금융여건을 유지할 계획

- 4/4분기에 경기회복 기조가 다시 강화되고 2022년에는 경제가 코로나 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 완전 고용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 다만 금리인상 여건은 2024년 이후에나 충족될 것으로 전망

■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ETF 거래 시작, 대규모 거래 동반하며 상승 마감

- 프로세어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가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되어 거래를 시작. 해당 ETF는 비트코인 시세 자체가 아닌, 비트코인 선물계약을 추종하도록 설계. 이는 암호화폐 산업이 금융산업 주류에 접근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0/19 현지시각 기준)

- 미국 9월 주택착공건수(만건): 155.5, 8월(158.0), 예상치(162.0)
- 미국 9월 건설허가건수(만건): 158.9, 8월(172.1), 예상치(168.0)
- 유로존 8월 건설지출(전월비): -1.3%, 7월(0.1%), 예상치(-)

■ 주요 경제 이벤트(10/20 현지시각 기준)

- 미국 연준 퀼스 부의장 강연, बे이지북 발표, 유로존 9월 소비자물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스태그플레이션 논란, 실제 발생까지 시간을 갖고 확인할 필요 - 블룸버그

(Economy Has Plenty of Offramps Before Stagflation City)

-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는 8월에 전년동월비 4.3% 상승하여 목표치 2%를 큰 폭 상회. 반면 애틀랜타 연은이 발표한 3/4분기 실질 경제성장률 추정치는 1.2%로 저조. 이에 스태그플레이션 논란이 가중
- 1947년 이후 5년 평균 실질 경제성장률은 최근 포함 5회 장기 평균을 하회.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진입을 제외하고 나머지 3회는 수년 간 고물가 저성장이 지속되었지만, 이후에 실질 경제성장률이 장기 평균 이상으로 회귀
- 이에 일정 기간 고물가와 저성장이 지속되어도 스태그플레이션 발생을 단정 짓는 것은 오류일 가능성. 보다 정확한 판단에는 시간이 필요

■ ESG의 무분별한 투자, 관련 자산 가격 왜곡 등의 부작용 초래 - Financial Times

(Lack of investment rigour risks creating an ESG bubble)

-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Bloomberg Intelligence는 ESG 관련 자산규모가 2020년 35조달러에서 2025년 50조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하지만 올바른 원칙이 동반되지 않은 투자는 금융시장의 위험 등을 촉발할 우려
- 특히 친환경 에너지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압력에 따른 무분별한 자금 유입은 시장의 적정 가격을 왜곡할 소지. 또한 기존 에너지 기업 혹은 자산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면, 에너지 수급문제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

■ 미국의 본격적인 경기회복, 고용 여건의 변화 등이 중요 - The New York Times

(The Economic Rebound Is Still Waiting for Workers)

■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기술 혁신과 정치적 노력 등이 관건 - Financial Times

(COP26 is the real thing and not a drill)

■ 영국의 부진한 무역 지표, 브렉시트의 경제 관련 부정적 영향을 시사 - WSI

(Is Brexit Hurting the U.K. Economy? Trade Data Flashes a Warnin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jsjeong@kcif.or.kr